

손골

제241호

2026년 01월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437번길 67 손골성지 ☎:(031)263-1242, Fax:(031)263-1252 발행 : 이재웅 다미아노 신부



손골편지 열아홉 번째

지난 첫눈도 어김없이 많이 내렸습니다.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 저녁 이후 기습적으로 내린 눈을 한밤에 다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습설이 밤새 얼어 제설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성지는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곳이 없어서 눈을 치우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은 확보했지만 차가 다니는 길과 주차할 곳은 치울 수가 없어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차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동네 초입에 두고 온 동네 주민의 차들도 다음날이 되어 서야 올라왔습니다.

작년 겨울의 첫눈, 날짜도 잊지 못하는 2024년 11월 30일의 기록적인 첫눈은 그 많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쓰러뜨리고 미사도 나흘이나 못하게 만들었으니 올 첫눈은 약과였습니다. 그래도 염화칼슘을 잔뜩 준비하고, 엔진 달린 송풍기도 두 개를 마련해서 적설로 인한 미사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 말입니다.

성지의 모든 물은 사무실 앞 관정으로부터 이어진 파이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수도가 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의방의 물이 얼어 겨우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입구가 되면 동파를 방지하는 작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겨울에는 무사히 무사히 넘어 갔으면 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순례 오신 교우들이 성지에서 온전한 정화와 회복을 얻어 갈까?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불편함은 무엇일까?’는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작년에 십터를 만들어서 그나마 설 곳이 생겼지만 주차 문제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3주차장을 신설하고 여차하면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열고는 있지만 여전히 2중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차를 빼러 황급히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해결책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년이기도 한 작년인지라 많은 순례 교우들이 찾아주셔서 성지의 재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성지를 조성하고 단장하는데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빛의 일부인 5000만원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액수를 갚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2027년에 있을 큰 잔치인 세계청년대회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 우리 성지에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순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홈페이지 개설이고 다양한 언어로 성지를 소개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골성지 홈페이지가 활짝 문을 여는 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봄에는 정성으로 조성한 성모 동산에 성모상을 모시고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모님과 함께 숨도 쉬고 맘도 쉬고 몸도 쉬고 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지로 오는 마을길은 험갈리기도 하고, 좁아서 차 두 대가 비껴가기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과 때론 불쾌함을 뒤로 하고 일단 성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마치 신앙의 고향에 온 것처럼 편해진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봉사 덕분입니다. 잡초를 뽑는 이, 잔디를 깎는 이, 낙엽을 치우는 이, 쉼터에 먹을 것을 채우는 이, 주차 안내를 하는 이, 성당 청소를 하는 이, 전례 거행을 준비하는 그 누군가들로 인해 성지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지 운영을 위해 지갑을 여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성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지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으로 인해 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난해의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골성지에 대한 그 관심, 올해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지에서의 매 미사 때마다 우리 후원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미약해도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어 열정으로 밀도를 만드는 하루하루를 통해 최고의 2026년을 가꾸기를 다짐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골성지에서, 다미아노 Dream

●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습니다. 힘내고 용기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울러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 지진과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손골성지개발 후원금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지의 모습은 나날이 새로워지며, 성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신심과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히며 이 모든 일들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한 경험 대신 내적 평화와 기쁨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인들의 삶과 마음,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모범을 지키고 드러내려는 저희의 노력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Fr.김기창, 강민준, 강순진, 강원덕, 강윤숙, 강혜영, 고영숙, 고종희, 곽외심, 권금숙,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기택, 김도훈, 김도희, 김동은,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승운,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재성,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기, 김창로, 김청자, 김현기, 김혜선, 김혜옥, 남정훈, 민경화, 박광윤,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을희, 박인숙, 박창호, 배재호,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서석재, 성순옥, 송경호, 송규중, 송미선, 송해인, 신금란, 신금란, 신동옥, 신승용, 신지영, 신현순, 안영기, 안용수, 양종만, 엄용희, 여승현, 오병택, 오용일, 유재룡, 윤상용, 윤성욱, 윤중필,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근순,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선민, 이수형, 이승준, 이영란, 이용복, 이은화, 이정숙, 이현의, 이호성, 이효주, 임동구, 임희자, 장명자, 장주순, 정경순, 정구승, 정보혜, 정소영,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영희, 정진식,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최경숙, 최수정, 최수환, 최승진, 최시순, 최영진,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수정, 한애숙, 함윤희, 허정희, 홍수경, 홍순기, 홍혜영, 홍혜진, 황애현, 황은숙, 분당구미동성당, 성복산업

(11월 후원자 명단)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매일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후원회원이셨다가 하느님계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소식을 듣는 대로 바로 연미사 3대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중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사 시간 안내

요일	시간
주일 · 평일	오전 11시 (월요일 없음)

● 후원 안내

☞ 모든 통장의 예금주 : 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우리은행 : 346-014220-13-101

농협 : 235100-51-010119

제일은행 : 600-10-016946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신한은행 : 140-007-958947

기업은행 : 111-000709-04-028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 신협 : 03227-12-001983

손골성지 관련 저서

※ 이 책들은 손골성지에서나 인터넷 (www.pauline.or.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성(聖) 도리 신부와 손골”
(한글, 불어, 영어) (윤민구 신부 외 지음)
- “성(聖) 도리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103위 성인의 탄생 이야기”
(윤민구 신부 지음)
- “성 오메트르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공역)
- “성 도리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역)



※ 출판사 “기쁜소식” : goodnews1989@hanmail.net